제법 셌던 부안 지진, 사찰 전각·불상 피해

국가유산청, 부안군 일대 국가유산 긴급점검

내소사 대웅전 변위 발생
개암사 불상 불두 파손돼
접근 금지 등 조치 실행해
"신속한 복구 최선" 약속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사찰 전각과 불상이 파손되는 피해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부안군 일대의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12일 오후 4시 현재까지 국가지정유산 3건, 시도지정유산 3건 등 6건의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오전 8시 30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중대본 1단계 발령에 따라 국가유산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은 현지조사단을 부안군에 급파해 부안 내소사, 개암사, 유천리 요지 등에 대해 정밀계측 및 드론을 이용한 상태확인 등 지진지역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에서 전면 앙토(서까래 사이 바른 흙)가 탈락되고, 내부 우측 공포와 우측면 서까래 등의 위치가 이동된 것을 확인했다. 내소사 설선당(시도유형)과 요사도 출입문 위의 앙토가 탈락되는 피해를 입었고, 경내 담장석이 지진으로 이탈되기도 했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은 담장에 균열이 가고 기와가 파손됐으며, 개암사 석가여래 삼존불좌상(시도유형)은 불두 좌측 장식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피해 전각과 불상 등에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부여·나주·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부여 부소산성, 나주 복암리 고분군, 완주 상운리 고분군 등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했으며,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보관 장식이 탈락됐다.(사진 왼쪽) 탈락된 보관 장식이 불상 옆에 떨어져 있다. (사진 오른쪽)

지진 발생 직후 피해 현장인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 일대에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조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의 경상 보수 인력 투입과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진도 4.8의 지진으로 부안군 일대에 폭음과 함께 건물과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는 피해가 있었다.

사찰 관계자들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신행연합조직 '불교학생연합' 출범한다

건학기본기관장 제25차 회의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 발표
6월 26일 중강당서 기념법회
단일 대학 최대 신행조직 예상

동국대 학생 신행연합조직인 '불교학생연합'이 출범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12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정각원장 제정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건학기본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위원회 5대 공통 의제에 대해 기관별 성과와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동국인 신행활성화 의제에서는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이 발표됐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불교학생연합'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법회는 6월 29일 오후 3시 교내 중강당에서 봉행된다. 교직원 정기법회와 연계돼 열리는 이날 법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동불과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회원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최근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변화한 점은 스님을 보면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캠퍼스에 15채, WISE캠퍼스 6채, LA캠퍼스에 1채, 현재 22채의 큰 집을 지었다. 앞으로 화두는 이 집들이 잘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기련 건학위원장은 "동국의 변화는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잘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면서 "건학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2학기부터는 연등 제작 교양 교과목이 신설된다. 이 과목을 통해 연등의 역사와 제작 이론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연등회에서는 동국대가 제작한 수준 높은 전통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방송 제11대 사장 후보 추천 공모

7월 29일~8월 9일 후보 접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현재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BBS불교방송의 신임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자격 요건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로서, 불교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이다.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사장 후보로 모시고자 한다"면서 "특히 신심이 깊고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불교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단에 '제11대 불교방송 사장 후보 천거'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8월 9일까지 8주간 이뤄지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제출 기간은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8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서류 제출은 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천거하게 된다.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02-719-2606

신중일 기자

민추본, 정책자문단에 전문가 11명 위촉

6월 12일, 인적네트워크 구성
종단 · 단체 사업 자문 등 협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사진〉

민추본은 2000년 민추본 창립시 정책기획위원회를 발족, 그동안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민추본의 남북교류사업관련 자문역할을 했다. 2007년 이후 남북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최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에 남북교류사업 외 민추본의 모든 사업에 대한 자문단으로 역할을 변경하면서 '정책자문단'으로 발족하게 됐다. 기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모두 정책자문단으로 새롭게 위촉됐으며 2명이 추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총 11명이며 남북, 통일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로창현 미주언론 '뉴스로' 대표기자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연희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등이다. 자문위원단장에는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은 "한반도의 평화 발걸음에 오늘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남북 갈등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자문단은 종단 및 민추본의 기조, 사업과 관련된 특정된 사업분야의 정기적인 회의 구조에서 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이루어지는 자문 외에도 민추본 교육관련 강의진행과 필요시 성명서 등의 자문, 세미나, 토론회, 집담회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된다.

위촉식 후에는 '남북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민간,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